목포시 '치매 프리 사업' 효과 톡톡

운동·음악·원예 치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호평
4개 복지관 104명 조사
기억력·정서기능 등 호전

목포시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고위험군 노인들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치매 발병율 감소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원예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치매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인 치매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치매 프리(FREE)-100세 청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치매 대상 환자들의 기억력·정서기능 능력 등이 호전됐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최근 4개 복지관에서 '치매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104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치매검사지 평균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수가 높아진 것은 주의집중능력·기억력·정서기능·언어능력 등이 호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목포시 보건소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하당노인복지관의 경우 68점에서 77점으로, 이랜드복지관은 64점에서 68점, 목포시노인복지관은 54점에서 63점, 상동종합복지관은 63점에서 70점 등으로 각각 높아졌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치매 프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목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 프리…'사업에 따라 ▲치매검진 ▲치매인지재활 ▲치매환자 및 가족힐링 교육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치매 바로 알기 교육을 비롯해 운동교실과 영양교육, 공예·음악·원예치료 등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8월말 기준 3만3411명. 전체 인구의 14.2%에 이르는데다, 치매 고위험군(75세 이상 독거노인)도 5160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치매 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첫 해인 2015년 297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난해 2324명에 대해 실시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1872명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보건소의 경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17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가 하면, 치매관리비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실제 치매등록 환자 수도 ▲2014년 1406명 ▲2015년 1593명 ▲2016·2017년 1671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내 사례관리 전문요원이 없어 환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보완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갯벌 즐기며 가을 노을 낭만 속으로

23·24일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여수 여자만의 가을 노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여수시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소라면 해넘이길 일대에서 '제 10회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를 연다.

갯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개막이, 바지락 캐기, 맨손고기잡기, 대나무 낚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갯벌 놀이터도 꾸며진다.

장척마을과 복개도 사이에 열리는 바닷길 500m를 걷는 복개도가족사랑 걷기 체험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이외 무사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노을 낭만 버스킹, 소원풍등 날리기 등 부대행사도 마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자만 갯벌에서 가족과 함께 낭만 가득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목포 관광 패러다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바뀔 것"

목포 해상케이블카 첫 삽 뜬 박홍률 시장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위해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 박차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기공과 관련,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목포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해상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 효과 뿐만 아니라 유달산과 고하도라는 기존의 관광 콘텐츠를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자연 경관을 보고 즐기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휴식·놀이를 가미한 복합관광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 시장은 "그동안 목포 관광은 음식·근대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고 고하도 개발이 속도를 내게되면 목포 관광산업 활성화를 비롯, 군산~영광~목포로 이어지는 서부 관광벨트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목포 관광산업을 미래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목포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유달산권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한편, 고하도에는 목화단지, 해안 힐링랜드, 전망대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하도~목포대교~대반동 해안도로~삼학도 일원으로 이어지는 9.9k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박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동남아,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시장 다변화에 대비하는 관광객 유치 전략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 3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유달산 서쪽에서 출발해 관운각 인근을 거쳐 목포 앞바다 위를 통과해 고하도까지 왕복하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3.23km(해상 0.82㎞·육상 2.41㎞)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K-POP 스타들 21일 여수에 뜬다

박람회 빅오쇼장서 공연

K-POP스타들이 여수에 온다.

'K-POP스타와 함께하는 맛과 멋(KWFF) in 여수' 공연이 오는 10월 21일 저녁 7시 '한류와 관광'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 빅오쇼장에서 열린다.

콘서트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워너원'을 비롯, 7인조 걸그룹 드림캐쳐, 랩퍼 넉살과 던밀스, 베이빌론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